



[해설]
‘120주년’ 우리은행
M&A·디지털로
세계화 시동
03



Economy

코스피	2137.44 (0.00)	코스닥	735.97 (0.00)
금리 (국고채 3년)	1.80 (-0.02)	환율 (원·달러)	1136.20 (+7.20) (8일)

달라진 삼성, 투자도 공헌도 통크게

JY 경영복귀 1년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되찾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일자리 확대와 기업간 협력 증진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메트로신문은 이 부회장 복귀로 삼성전자가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삼성전자 5G 생산라인을 방문한 모습. 이재용 부회장(왼쪽 4번째)은 지난해 5G와 AI 등을 미래 사업 부문으로 결정하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전략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 견인

AI·전장 등 비메모리 부문 4대 미래 신사업 광폭 행보

2018년 삼성전자는과축지세와 같은 기세로 우월한 대한민국 경제를 ‘하드캐리’했다.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면서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사회 공헌 활동도 대폭 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줬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2017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총수가 돌아온 삼성전자는 과감한 투자와 결정을 이어가면서, 한동안

추락하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최대 실적 기반 미래 먹거리까지 준비

1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은 243조7714억원으로 전년비 1.75% 늘었다. 영업이익은 58조8867억원으로 9.77%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당기순이익도 43조8909억원으로 6.16% 증가했으며 현금 보유액도 처음으로 104조2100억원에 달했다. 전년비 24.7% 불었다.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해볼 수 있는 지표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89곳 영업이익은 161조4337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혼자만

36.5%를 차지했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 부문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역대 최대 초호황기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량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점유율도 15%대로 두배 이상 늘리면서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재용 부회장은 메모리 육성을 선언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평택 공장이 바로 이 부회장 작품이다. 경영복귀 직후에는 30조원을 쏟아부어 평택공장 2라인 건설까지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결정이다. 특히 비메모리 부문 성장은 이 부회장의 ‘신의 한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첫 행보로 유럽에 신설할 AI연구센터를 둘러보며 미래 준비를 시작했다. 8월에는 AI와 5G, 전장과 바이오 등 4개를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미국과 중국, 인도 등 광폭 행보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문 기술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상태다. 파운드리 부문은 EUV(노광장비) 7나노미터 공정으로 세계 최고, 5G 장비도 더 작고 빠른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출시한 전장 부품 브랜드 ‘엑시노스 오토’는 아우디 공급 계약을 수립하기도 했다. 엑시노스 9820은 AI 장치인 NPU를 탑재하면서 자타공인 최고 성능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으로 거듭났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가 자리를 비우면 투자를 줄이면서 일시적인 실적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신, 미래 전략을 수립하지 못해 성장이 어려워진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복귀 후 미래 성장 사업을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도, 역대 최고 실적까지 거두는 1석 2조 효과를 본 셈”이라고 평가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10대 그룹 상장사 신임·재선임 사외이사 출신별 현황>

그룹	권력기관						비권력기관						총계		
	장차관	감판사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합계	비율	교수	회계사	외국인	금융	CEO		기타	합계
삼성	4	3	0	0	1	8	36.4	11	0	0	2	0	1	14	22
현대차	1	0	3	0	1	5	20.8	6	0	8	0	3	2	19	24
SK	1	0	1	0	0	2	15.4	7	0	0	2	1	1	11	13
LG	0	1	0	1	0	2	11.1	9	3	0	1	2	1	16	18
롯데	2	0	0	1	0	3	23.1	7	1	0	1	0	1	10	13
포스코	0	0	0	0	0	0	0.0	4	0	0	0	2	0	6	6
GS	1	3	0	0	0	4	57.1	2	0	0	0	1	0	3	7
한화	1	2	2	0	0	5	50.0	2	0	0	1	0	2	5	10
농협	0	0	0	0	0	0	0.0	1	0	0	0	5	1	7	7
현대중		3	1	0	1	5	55.6	3	1	0	0	0	0	4	9
총인원	10	12	7	2	3	34	26.3	52	5	8	7	14	9	95	129
비율	7.8	9.3	5.4	1.6	2.3	26.3	26.3	40.3	3.9	6.2	5.4	10.9	6.9	73.7	100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힘 있는 사외이사 모셔라 후보 26% 권력기관 출신

10대 그룹 주총안건 분석

장·차관이나 법조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주요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 사외이사 후보는 친 정부 인사나 노동조합 출신 등이 거론되고 있어 ‘정치 외풍’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독·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외부 방패막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는 ‘견제받기 직후인 1998년 정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과 무리한 의사결정이 경제위기의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이들을 견제하고자 사외이사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10일 재벌닷컴이 지난 8일까지 공시된 자산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95곳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신임 및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 129명 중 장·차관이나 판·검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출신이 26.3%인 34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판·검사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장·차관(10명), 국세청(7명), 금감원(3명), 공정위(2명) 출신 순이었다. 전직 권력기관 출신이 사외이사로서 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의 로비창구이자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안상희대신재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대관성 업무를 맡기기 위해 초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그룹별로 보면 분석대상 10대 그룹 중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후보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삼성그룹(8명)이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인 박재와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신규 후보인 허근영 전 청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삼성생명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신규 후보로 올리는 등 삼성그룹 사외이사 후보 중 권력기관 출신자의 비율은 36.4%였다. 다음으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후보 비율은 GS그룹(57.1%), 현대중공업 그룹(55.6%), 한화그룹(50.0%) 순으로 나타났다. 권력기관 출신이 아닌 사외이사 후보로는 교수가 52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또 회계사, 금융인, 전문경영인 등이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삼성화재는 현재 김성재는 현재 김성

진 전 조달청장, 삼성생명에 강운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가 현재 사외이사로 있다. 또 CJ ENM 사외이사인 박양우 중앙대 교수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반대로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스물 한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힘있는 관료나 정치인 출신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서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외이사 스스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지 못하도록 주주가 행동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아세안 3개국 순방 나서는 문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 전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민간 수소충전소 시대 개막... 4년 내 100개소 구축

한국가스공사 등 13社 연합 특수목적법인 ‘하이넷’ 출범

수소 관련 13개 회사가 모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함에 따라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부터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이 공식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SPC의 공식명칭은 ‘수소에너

지네트웍스(㈜하이넷)’이며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수소 연관 사업을 선도하는 13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번 하이넷의 공식 출범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사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운영돼 왔으며, 민간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이넷은 올 1월 울산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정부의 수소차 확산목표의 실현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수소차 누적 6만7000대(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고, 전국 최대 31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하이넷은 2022년까지 정부의 수소충전소 목표(310개소)의 30%를 넘어서는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소충전소의 효율화 및 규제·제도 개선, 서비스 향상 등도 추진한다. 참여기업 간 협력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수소충전소 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발굴 및 수소차 소유자들의 불편 완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면에 계속>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